

자기소개서

천민영

성장과정

"꾸준하게 내공 쌓기"

저는 중학교 시절 컴퓨터 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컴퓨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관련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컴퓨터의 기본 구조부터 언어 등을 배우면서 컴퓨터에 대해 알아 가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늘어날수록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디지털 논리회로를 배울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수업시간마다 매일같이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모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을 노력으로 점점 실력이 늘어나게 되었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아닌 제가 친구들을 알려주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고 될 때까지 노력하면 어려웠던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 격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저의 장점은 항상 모든 일을 시행함에 앞서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고, 혹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그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차분히 해결하려 노력하며 나쁜 일은 쉽게 잊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매사에 열정을 다해 성실히 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타인이 들었을 때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사소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고민은 평소에 해결이 되고 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는 많은 생각과 고민으로 후회 없는 결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소한 고민을 덜기 위해서 '하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 점

"나의 1코어"

저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면 알고 싶었고,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모르는 문제에 대해 알아야 했었고, 대학생 시절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아르바이트에 도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업무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던 저는 게임을 직접 테스트 할 수 있는 QA 업무에 도전해 게임 프로세스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스트 리더로서 꼼꼼한 성격을 바탕으로 테스트 진행 방식 및 보고서 작성을 진행해왔고, 실행하기 전 머릿속에서 1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는 저만의 방식을 지니고 있어 누구보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기 편안한 방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제가 QA팀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입사 후 포부

"행복의 가치"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QA는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배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하고 성장하며 저와 회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게임QA 업무를 진행해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와 QA 능력을 길러왔습니다. 또한 저는 뛰어난 대인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에게 QA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진 능력과 노력으로 팀에 맞는 일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또한 저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작이 늦었다고 결과가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끊임없이 저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 채워 나가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천민영이 되겠습니다.